

“절 기둥·기왓장 마다 마을사람들 땀 배어있지라”

금탑사지킴이 박경식·정천기 거사

“금탑사 경내 전각들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기둥이나 기왓장 하나하나에 인근 마을주민들의 땀방울이 흥건히 배어 있더라. 이쪽 사람들 대부분이 주머니가 넉넉하질 못해. 그래서 불사가 10년이나 걸렸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이야기하면 소설로 10권을 써도 모자라버려.”

첫 대면부터 얘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놓는 박경식(70)·정천기(72)거사. ‘금탑사 지킴이’를 자처하는 두 거사는 기자를 보자 가슴속에 꼭꼭 채워둔 추억의 실타래를 한올한올 풀어 해친다. 상처 투성이인 손마디를 보니 하소연 섞인 불만도 나올법한데 두 사람 모두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미소가 하나 가득이다. 원력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진한 보람의 체취가 느껴진다.

“금탑사 불사에 사용된 나무나 기왓장은 돈주고 사온 것이 하나도 없지라. 전부 산에 가서 구해 오거나 한옥 폐가에 가서 주워온 것들이지.”

92년, 비구니 서립스님이 전남 고흥 포두면 깊은 산골 금탑사에 주지 부임했을 때 절은 비새는 법당과 노전, 그리고 명부전이 전부로, 폐쇄되어 있었다. 처음엔 금탑사 아래 마을인 금사리에서 나온 자란 박경식 이장과, 바로 옆 마을 처지리의 정천기 거사에게 서립 스님의 부임은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금탑사에는 여러 스님들이 거쳐 갔지만



◇90년초 세 채뿐이던 전남 고흥 금탑사의 전각이 일곱 채로 늘었다. 사진은 금탑사의 깔끔한경내 모습.



◇서립 주지 스님의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사찰 아래 저수지로 포행길에 동참하는 금탑사 신도들. 왼쪽부터 박경식거사, 서립 스님, 김영업보살, 정천기거사.

불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가오면 법당의 부처님은 비를 맞기 일쑤였다. 비에 젖은 부처님과 우투투 무너지기 일쑤인 절 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서립 스님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날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낮은 땅은 돌워 올리고, 가파른 곳은 깎아 평평하게 했다. 또 홍수때마다 흩사태가 나는 산자락을 쳐내어 법당이 비가 들이치지 않게 했다.

“작은 체구의 스님이 어찌나 열심히 하든지 마을 사람 모두가 감동받았지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큰 계기는 스님이 유난히 차사고가 많은 곳에서 수목재를 지내주고 부러지요. 재 울리고부터는 사고가 나질 않아. 얼마나 고마운지...”

두 거사를 비롯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섰다. 산에 올라 나무를 팔라 서까래감으로 기둥감으로 골라 다듬었다. 마을 사람들이 힘에 부쳐 할 때마다 힘이 된 것은 서립 스님이 옮겨준 신묘장구대다라니다.

나무공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박경식·정천기 거사에게 불사에 좋은 나무가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그러던 두 거사는 밤중에라도 나무를 실으러 달려갔다. 금탑사 행편 상 샅을 치르고 베거나 운송할 처지가 아니었다. 도덕면, 관역면, 집안면, 도하면, 포두면... 고흥군내의 산이란 산은 안 올라가 본 곳이 없을 정도다. 손도 성할 날이 없었다. 무거운 나무를 들다가 놓치거나 나무뭉치는 줄이 스쳐 손이 찢어진 적도 있었다. 얼굴의 주름만큼은 몸에 상처도 늘어갔다.

개미들이 흙을 조금씩 물어와 집을 짓듯 그야말로 금탑사의 불사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이 10여년이 훌쩍 지나 이들은 이제 고흥을 넘겼다. 하지만 그냥 나이만 먹은게 아니었다. 나한전, 지장전, 종각, 삼성각, 금화루, 누각 등 일곱채가 번듯하게 새로 지어지거나 고쳐졌다.

“금탑사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고흥군내 학생들이 소풍을 왔을 정도로 큰 내에서는 제일 크고 유서깊은 사찰이 었지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찰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했었어. 그런 마음으로 불사에 참여하다보니 하나도 힘든 것이 없었소. 절 앞마당에 서서 전각들을 바라보면 어디서 온 나무나 기왓장인지 금방 알아부러.”

어디서 그렇게 많이 신고 왔는지 절 환전에 아직도 나무와 기와가 수북이 쌓여있다. “우리절의 재산목록 1호”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두 거사의 얼굴에 함박 미소가 번진다.

금탑사를 나오는데 주지 서립 스님이 기자가 꼭 만나봐야 할 보살이 있다며 고흥읍내로 안내했다.



◇자신들이 산에서 구해온 나무를 해우소 서까래와 기둥으로 다듬고 있는 박경식(왼쪽), 정천기 거사.

10년 불사... 손 마디마디 상처 건축자재 산·한옥 폐가서 주워 장 담그기 등 절 일 내집 일처럼

길거리 난전에서 과일 행상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스님을 보자 합장하며 반색한다. 바로 신도회장 류계심(68)보살이다. 금탑사 불사의 일등공신으로 마을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는 보살이다. 수년간 류보살은 고흥읍내를 돌아다니며 화주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가게에 들어 서자마자 구석에서 공책 다섯권을 꺼내와 보여준다.

“내가 고흥읍내에서 장사를 오래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절에 모이라 하고는 나무 있는 사람 손들어! 하며 명단을 적어 거사님들에게 넘겨 줬어요.” 그간 맘뭏혔을 고생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북받쳐 금방 눈시울이 젖는다.

이렇게 고생하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일까. 인근 부락민들은 절을 마치 자기집처럼 편안히 여긴다는 것이 박·정 거사의 이야기다. 장 담그기나 볶듯 다기를 뒤는 일 등 절일 율력도 내 집일처럼 즐겁게 동참한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항상 웃으며 사찰의 운전기사를 자처했던 김유평(49) 거사, 스님을 시봉하며 절일이라면 한밤중에라도 뛰쳐올라왔던 이정식 거사(61)... 박경식 이장과 정천기 거사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었다. 어느 신도가 몽땅이 돈을 내었다면 맞보지 못했을 환희심을 금탑사 인근마을 주민 모두가 가슴 가득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고흥=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고흥읍내의 한옥 폐가에서 뜯어온 기왓장이 불사에 쓰일 생각을 하니 흐뭇하다는 박경식, 정천기 거사.

발명특허원 15826호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 (豆土)

- 진이 잘 나지 않으면 배상하여 드립니다.



- ◇가 격 : 77,000원 (중급, 베타, 약콩 1회용 포함)
- ◇모델명 : KT-870
- ◇발효용량 : 276 × 305 × 322
- ◇사용전압 : 220v
- ◇정격소비전력 : 73w
- ◇무 게 : 3.7kg

제품의 특징

- ◇생으로 먹을때는 **냉도**, 찌개로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다.
- ◇냄새를 안나게 할 수도, 진하게 할 수도 있다.
- ◇무염 발효식으로 염도 조절이 가능.
- ◇질 좋은 국산콩을 선택하여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 된다.

편치볼 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무농약 고랭지 콩이라 맛이 좋습니다.
- ◇밥에 검은 물이 들지 않습니다.
- ◇항암 효과로 알려진 「아이소 플라본」이 평야지 콩보다 무척 많이 들었 있습니다.
- ◇가격 12,000원(Kg당) 할인 → 9,000원

지금 편치볼에는 새역사가 펼쳐집니다.

- 6개의 무농약 콩 작목반, 120만평의 콩단지 조성

우리콩운동본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25-1 신청 : Tel.(033)481-4894

● 온라인 : 농협 123-17-000466 정 략 훈